도쿄를 가득 담은 날

바람의 온도가 체온을 닮은 날이었다.
그 동질감이 반가워
몸도 마음도 가벼이 떠나기로 한다.
비운 자리엔 도쿄를 가득 담아 오면 되니까.

글 · 사진 이은지 기자 **취재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

롯폰기힐즈에서 바라본 도쿄타워. 강렬한 붉은 빛에 시선을 빼앗긴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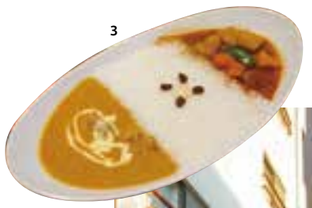
우연히 발견한 하루

첫 도쿄는 우연에 맡겼다. 가고 싶은 곳이야 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그럴 땐 오히려 두 손을 탈탈 털어 버리는 것이 상책. 과감하게 휴대폰 지도를 끄고 지나가는 사람을 따라 그저 흘러 다녔다.

슬슬 배고파지던 차에 발길이 이끄는 대로 향했다. 첫 끼는 카레로 정했다. 정성껏 담겨 나온 카레를 크게 한 입 욱여넣었다. 소박하고도 거창하다. 첫인상이 좋다. 도쿄에서 보내는 나날이 즐거울 징조다. 무심코 지나치다 꺄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학생들을 따라 베이커리로 들어갔다. 메뉴는 구운 치즈케이크 하나. 한 입 베어 무니 많이 달지 않은 진한 치즈의 풍미가 입 안을 가득 채운다. 위는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번 여행의 테마를 정했건만. 어찌 여행에서 미식이 빠질 수 있으랴. 신년계획인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다.

한적한 곳을 찾다가도 다시금 도시로 향하게 되는 건 화려함 덕분일 테다. 도쿄에는 랜드마크인 도쿄타워, 스카이트리 등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훌륭한 스폿이 많다. 40~50층 높이의 전망대까지 모두 1분도 안 돼 단숨에 도착하니 편하게 마실 나가듯이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다. 빨갛게 물든 도쿄타워를 보고 싶다면 롯폰기힐즈가 제격. 회색빛 건물 사이로 도쿄타워의 존재감이 뚜렷하다. 기념품을 사러 들어간 쇼핑몰 키테 옥상정원에서는 오렌지빛 외관이 반짝이는 도쿄역 야경을 만났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좋다. 이렇듯 발견하는 매력이 있으니.

1 쇼핑과 유흥의 중심 신주쿠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다 2 신주쿠 세이부역에서 바라본 신주쿠 거리. 아직 세상이 파란데 가로등에는 벌써 노란 불이 들어왔다 3 보보커리에서는 카레 맛을 2~3가지 선택할 수 있다 4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3시, 디저트를 먹기 딱 좋은 시간이다 5 도쿄도청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쿄 시내 전경


3

4

5

BOOK

문득 책을 읽고 싶은 날에

여행을 떠나면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이 하고 싶어진다. 예를 들면 독서. 사각거리며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빽빽한 책꽃이 너머로 풍겨져 나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는 향기롭다. 도쿄의 감성을 가득 담은 책방을 다녀왔다.

100년 전통 기타자와

기타자와 서점은 무려 100년이 넘게 진보초를 지켰다. 외국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2층으로 올라가니 키를 훌쩍 넘는 고풍스런 책꽃이가 맞이한다. 마치 〈해리포터〉 속 도서관 같기도. 책장을 가득 채운 두꺼운 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된다. 앤티크한 공간에 들어서니 절로 마음이 두근거린다.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이다.

2 Chome-5, Kanda Jinbocho, Chiyoda City, Tokyo
월~금요일 11:00~18:30, 토요일 12:00~17:30(일요일 · 국경일 휴무)

귀여워, 고양이서점 냔코도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진리요, 불변의 법칙이니. 서점을 온통 메운 귀여운 고양이 사진에 심장이 남아나질 않는다. 가슴을 움켜잡고 아늑한 내부를 돌아본다. 고양이 요가 책이라니! 달력이라니!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심장이 쿵. 랜선 집사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울려 퍼진다.

2 Chome-2-2, Kanda Jinbocho, Chiyoda City, Tokyo
월~금요일 10:00~21:00, 토요일 12:00~18:00(일요일 휴무)

아, 눕고 싶다! 북앤베드 도쿄

휴일이면 누워서 뒹굴뒹굴 책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북앤베드 도쿄는 책장 속 캡슐 호텔이다. 책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숙박 예약은 필수. 하루 정도 기분을 내고 싶다면, 데이타임을 이용해 보자. 침대 대신 푹신한 쇼파와 계단식 의자에 몸을 기대고 책을 뒤적이고 있으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1 Chome-27-5, Kabukicho, Shinjuku City, Tokyo 일일 이용시 13:00~18:00
1시간 650엔, 2시간 1,200엔, 3시간 1,750엔

한국어가 보고플 때 책거리

떠나오면 그립기 마련. 진보초 책거리에서 한국 책을 만났다. 한국에서 늘 볼 수 있어도 바다를 건너와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 들어서자마자 반기는 이 주의 신간은 한국과 시차가 없을 정도. 서점 한 구석에서는 복주머니, 인형 등 한국 전통 기념품을 판매하고, 카페도 함께 운영하니 차 한 잔 즐기면서 고국의 정취를 활자로 느껴 보는 건 어떨지.

1 Chome-7-3, Kanda Jinbocho, Chiyoda City, Tokyo 12:00~20:00(일 · 월요일 휴무)

치맥? 책맥! 비앤비(Book&Beer)

맥주와 함께 하는 모든 것은 안주가 된다. 그게 설령 음식이 아닐지라도. 시원한 생맥부터 병맥까지. 비앤비에서는 책맥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맥주가 준비돼 있다. 이곳엔 간단한 매너가 존재하니, 바로 공부와 일은 금물. 오롯이 맥주와 책을 즐기기 위한 규칙이다. 동네 책방에 온 듯 때 묻은 책장이 정겨움을 더한다.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도 진행 중이다.

2 Chome-5-2, Kitazawa, Setagaya City, Tokyo 매일 12:00~23:00

Theme

당신의 캐리어를 채울 이색 테마숍

결국 남는 건 추억이요, 추억을 남기는 건 물건이니. 매번 가득 찬 캐리어를 옮기느라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지만 마음만은 풍요롭다. 도쿄에는 덕후의 취향을 공략하는 다양한 테마숍이 많으니, 원하는 대로 골라 가면 그만.

도심 속 자연 슬로우 하우스

입구부터 식물이 가득, 잘 꾸며진 정원 속에 들어온 느낌이다. 화이트톤의 외관과 푸른 나무가 어우러지는 슬로우 하우스는 유럽풍 디자인으로 인기인 일본 유명 가구 브랜드 액터스(Actus)의 인테리어숍이다. 가구 및 식기 등 리빙 용품이 2층 규모의 가게에 가득하다. 센스 있는 배치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찬찬히 둘러보기 좋은 곳.

2 Chome-1-3 Higashishinagawa, Shinagawa City, Tokyo
11:00~20:00(수요일 휴무)

물건에도 새 생명을 패스 더 바통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빈티지숍 패스더 바통은 중고에 대한 편견을 깨준다. 제품 선정부터 배치까지 세세한 관심이 깃들었다. 정성을 다한 큐레이션 덕에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매장을 둘러본다. 매장 한쪽에서는 재활용 가방이 전시되고, 반대쪽은 가방, 옷, 구두를 옷장 테마로 꾸며놓았다. 가격대는 있지만 명심하자. 이곳을 나서면 다시는 보지 못할 제품일 수도.

4 Chome-12, Jingumae, Shibuya City, Tokyo 매일 11:00~21:00

여행자만을 위한 트래블러스 팩토리

쓰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쟁여 놓는 게 인지상정. 공부 욕심은 없더라도 문구 욕심은 언제나 가득. 여행 감성을 가득 담은 문구점 트래블러스 팩토리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마침 경품 추첨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고. 여권 케이스, 수첩, 스탬프 등 아기자기한 문구를 두 손 가득 쇼핑하니 마음까지 든든.

3 Chome-13-10, Kamimeguro, Meguro City, Tokyo 12:00~20:00(화요일 휴무)

화려한 색감이 가득 피그먼트 도쿄

화려함에 매료된다. 벽면 전체를 채운 색색의 안료에 시선을 빼앗긴다. 텐노즈아일에 위치한 화방 피그먼트 도쿄다. 유리병에 담긴 안료들은 무려 4,500여 종류에 달한다고. 게다가 다양한 크기의 붓까지 판매하고 있으니, 동양화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음알음 소문이 난 곳. 유화, 캘리그래피 등 워크숍 참여도 가능하니 '미(술) · 알 · 못'이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2 Chome-5-5, Higashishinagawa, Shinagawa City, Tokyo
11:30~19:00(월 · 목요일 휴무)

AIRLINE

한국에서 도쿄까지는 약 2시간 10분. 인천에서는 나리타공항, 김포에서는 하네다공항을 연결한다. 각 공항에서 매일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으니 접근성도 좋다. 김포에서는 일본항공, ANA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매일 직항편을 운항하고 인천에서는 국적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가 도쿄 노선을 매일 운항 중이다.

WEATHER

도쿄의 겨울은 서울의 늦가을 날씨와 비슷하다. 평균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12도. 두꺼운 패딩보다는 코트와 목도리를 추천.

HOTEL

신주쿠 프린스 호텔

세이부신주쿠역과 연결돼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객실 정면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신주쿠 시내 야경이 훤히 보인다. 1인 숙박이 가능한 싱글룸부터 마련돼 있어 혼행족들이 이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다. 25층 레스토랑에서는 도쿄 시내 전망을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나만의 일본을 LIVE 하다
취재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

카메라 속 오후의 후쿠오카

찰칵. 또 연이어 찰칵.
연신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댔다.
후쿠오카의 순간들을 고이 접어 보관해 두겠다는 욕심은,
그래도 꽤나 유용한 착각이었다.

글 · 사진 곽서희 기자 **취재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오호리 공원의 호수 앞에서 무력해진다

1

괜스레 파스텔톤 자전거를 타고 싶던 날

그간 참 넉넉하지 못했다. 마음도, 무엇도. 시간을 다 투며 지냈고 남과 나에겐 박했다. 후쿠오카의 오호리 공원은 반대였다. 한없이 너그러웠다.

날씨부터 그랬다. 후쿠오카에서 연중 가장 추운 1월이었건만, 입김 대신 늦가을 같은 공기만 피어올랐다. 모든 건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뭇잎, 호수, 땅 틈새에 피어난 작은 풀씨까지. 학생들은 달리기 연습을 하고 아이들은 몇 번이고 내려올 미끄럼틀을 다시 올랐다. 흙냄새 맡기 바쁜 강아지는 자꾸만 주인 발걸음에 쉼표를 찍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 마음 내킬 때면 언제든 편히 쉴 수 있는 곳. 생각해 보면 오호리 공원은 늘 그랬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파편처럼 흩어졌던 저마다의 일상들이 여기 한데 모이곤 했다.

2km의 산책길은 금방이었다. 호수 주변에 심어진 3,000여 그루의 버드나무를 하나하나 손으로 짚다 보니 매캐했던 기분이 씻겨 갔다. 공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호수는 5월 초순 즈음엔 더 옅은 하늘색으로 변할 터였다. 그 옛날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구덩이를 파 연못을 만든 게 후쿠오카 시민들의 사랑 받는 쉼터가 됐다니. 그때나 지금이나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것들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맛있는 건 아껴 뒀다 꼭 나중에 먹는 버릇처럼, 자전거 대여는 맨 마지막으로 남겨 뒀다. 공원의 대부분이 평지라 날 좋은 오후에는 두 발보단 두 바퀴가 낫다. 괜스레 유치한 색이 탐난다. 호수색과 깔맞춤 한다는 명목으로 고른 파스텔톤의 자전거 핸들엔 무지개색 솔이 달렸다. 따르릉, 페달이 가볍다.

1 오호리 공원은 신기한 것들 투성이다 2 경기를 앞둔 두 선수 3 휴식의 모습은 다양하다

2

3

Bread

빵.알.못도 반해 버린 후쿠오카 빵집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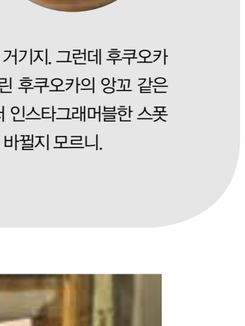
한국인은 밥심이지, 빵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후쿠오카는 취향도 바꿨다. 빵.알.못도 반해 버린 후쿠오카의 앙꼬 같은 빵집들을 소개한다. 작은 베이커리부터 인스타그래머블한 스폿까지, 마음껏 골라 보자. 당신의 취향도 바뀔지 모르니.

자그마한 동네 빵집
우팡 베이커리

한적한 주택가. 고요함만 흐르는 길목에 작은 빵집이 빼꼼히 들어섰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아담하다. 사람 한 명 서 있기만 해도 꽉 차는, 자그마한 공간은 빵 냄새로 그득하다. 간간히 동네 주민들만 작은 실내를 채웠다 이내 자리를 뜬다. 너도나도 벌꿀크림빵과 피넛버터빵이 담긴 빵 봉지를 달랑달랑 손목에 걸고. 가격은 200엔으로 저렴하지만 맛은 정확히 반비례다. 하얀 봉지에 포장된 빵을 꺼내 본다. 달달한 크림과 고소한 땅콩 맛이 보풀처럼 혀에 오돌도돌 돋아난다. 식빵 모양의 간판은 우팡 베이커리의 시그니처다.

3 Chome–7–16 Ogusu, Minami Ward, Fukuoka 월 · 화 · 목 · 금요일 11:00~18:00, 토 · 일요일 11:00~16:00(수요일 휴무) 벌꿀크림빵, 피넛버터빵 200엔

다락방에서 오후의 휴식
모로팡



바깥에서부터 빵 냄새가 솔솔. 지나치려다가도 문득 돌아보게 만든다. 사람 사는 집인가 했더니, 빵집이다. 옛 주택을 개조한 모로팡의 매력은 2층에 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조심조심 오르면 작은 정원이 내려다보이는 다락방 같은 공간이 나타난다. 넓지 않은 공간에 창이 무려 네 개다. 오후 3시, 햇살 듬뿍 들어오는 시간이라면 더욱 좋겠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인기 있는 빵들로 담아 왔다. 빵 한 입에 밀크티 한 모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자세를 고칠 때마다 들리는 나무의자 소리. 오후의 휴식은 모름지기 이런 것이다.

1 Chome–17–5 Takamiya, Minami Ward, Fukuoka 7:00~17:00(월 · 일요일 휴무) 각종 빵 200엔대

온리 쉬폰 케이크
마리에

한 가지에만 올인했다. 마리에는 쉬폰 케이크 전문점이다. 한 우물만 파는 이들이 으레 그렇듯, 마리에는 그 하나를 '제대로' 한다. 쫄깃한 식감의 타피오카 쉬폰이 인기 메뉴지만, 어쩐지 바나나 맛이 끌린다. 햇빛 드는 1인석 자리를 점하고 뭉텅, 쉬폰을 한웅큼 뜯었다. 보송보송한 아기 엉덩이처럼 부드럽다. 첫 맛에 바나나향이 훅 치고 들어오더니, 은은한 홍차맛으로 마무리. 달지 않아 좋은데, 참 헤프다. 몇 번 뜯어 먹으니 금세 사라졌다. 다음 방문을 기약할 딱 좋은 변명이 생겼다.

3 Chome–17–17 Ogusu, Minami Ward, Fukuoka
10:00~17:00(월 · 화요일 휴무) 쉬폰 케이크 680엔부터

콩고물의 강력한 유혹
아망다코탄

이른바 콩고물, 그 포슬포슬한 가루가 뭐라고 사람 마음을 들뜨게 한다. 콩고물이 잔뜩 묻은 팥빵은 아망다코탄에서 꼭 먹어 봐야 할 '빵킷리스트' 중 하나다. 달콤한 팥이 아낌없이 들어간 빵만으로도 충분한데, 겉면엔 고소한 콩가루가 야무지게 발라져 있다. 크게 한 번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빵이 활짝 핀다. 입가에 묻은 가루까지 혀로 쓱 핥아먹고 나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출 길이 없다. 달달한 팥빵 뒤에는 바삭하고 짭짤한 명란바게트로 입가심. '단짠'의 조화는 만국공통의 진리다.

3 Chome–7, 6 Ropponmatsu, Chuo Ward, Fukuoka
10:00~18:00(수요일 휴무) 콩고물 팥빵 240엔, 명란바게트 390엔

빵인 듯 버거인 듯
그라티에

카레는 밥에 먹어야 제 맛이지. 이유 모를 오랜 고집에 카레맛 'OO'은 덮어놓고 싫어했다. OO에는 우동도, 과자도, 심지어 치킨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빵이 난데없이 들어섰다. 문제는 정말 맛있다는 것. 그냥 카레빵도 아니고, 무려 '와규카레빵'이다. 이래 봬도 그라티에의 최고 인기 메뉴다. 잘게 다진 소고기와 부드러운 카레가 쫄깃한 빵과 적절히 어우러졌다. 마치 질 좋은 패티와 감칠맛 나는 소스가 듬뿍 뿌려진 먹음직스러운 수제 버거 같다. 속는 셈 치고 먹었다지만, 이런 맛이라면 열 번도 더 기꺼이 속고 싶다. 옹졸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자동적으로 계산대 앞에 다시 섰다. "와규카레빵 하나 더요."

4 Chome–1–31 Hakataekiminami, Hakata Ward, Fukuoka
7:00~19:00 (월요일 휴무)
와규카레빵 240엔

Café

나를 모르고 내가 모르던 카페

여행의 묘미는 낯섦에 있다. 나를 모르고 내가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것. 들어서자마자 한국어 메뉴판을 내미는 가게나 SNS에서 익히 보아 익숙한 카페들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는 카페들을 발굴했다. 낯설지만, 그렇기에 또 반갑다.

어느 주말 오후에
카페 마루고

밥은 먹었고, 별다른 약속도 없는 날. 사람 없는 동네 카페에서 노닥거리고 싶은 일요일 오후. 그런 날 방문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보다 더 깊을 수 있을까 싶은 아주 짙은 검은색이 예쁜 잔에 담겨 등장한다. 에티오피아 커피다. 융드립으로 한 잔 한 잔 정성스럽게 내렸다. 진한 색 안에는 맑고 깨끗한 맛과 놀랍도록 풍부한 향이 숨어 있다. 짝궁인 치즈케이크는 너무 진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다. 딱 한가로운 주말 오후처럼.

2 Chome–10–23 Yakuin, Chuo Ward, Fukuoka
10:00~20:30 에티오피아 커피 610엔, 치즈케이크 380엔

마스터의 손끝에서
카페 테논

숲, 그것도 인적 드문 아주 깊은 숲 속 한가운데 들어온 느낌이다. 카페 테논은 온통 나무다. 문, 탁자, 의자, 벽, 심지어 바닥까지도. 나무향은 커피향과 묘하게 섞였다. 쪼로록 커피 따르는 소리, 커피잔과 컵받침이 부딪히는 소리, 혼자 온 손님과 마스터가 조곤조곤 이야기 나누는 소리만이 작은 실내를 감싼다. 커피에는 정성이 깃들었다. 직접 간 얼음 조각에 커피콩도 모양 예쁜 것들로만 세심히 골랐다. 아이스커피에는 우유가 들어가 고소한 맛을 더하고, 부드러운 카페오레는 목 넘김이 좋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한 이들에게 테논은 훌륭한 도피처다.

4 Chome–12–10 Shiobaru, Minami Ward, Fukuoka 11:00~20:00 커피 600~700엔대

나도 마리 앙투아네트
파티시에 자크

마음이 진자운동을 한다. 저기로 갔다, 또다시 이쪽으로 온다. 전부 다 맛있어 보이니 선택장애가 올 따름. 어렵사리 고른 케이크는 맛있는데 예쁘기까지 하다. 초코 쉬폰과 딸기잼이 들어 있는 피스타치오 케이크는 호불호가 없을 맛이다. 딸기로 장식된 '마리 앙투아네트' 케이크에는 쌉싸름한 페퍼민트 밀크티가 제격이다. 고급스러운 식기에 클래식 음악이 더해진다. 오늘만큼은 나도, 마리 앙투아네트다.

3 Chome–2–1 Arato, Chuo Ward, Fukuoka
10:00~18:00(월 · 화요일 휴무) 페퍼민트 밀크티 690엔, 케이크 500엔대

밤 열두시의 카페
마이크 코메르시

야심한 밤, 이자카야에서 사케로 목을 축이고 2차로 달달한 게 당길 무렵 딸랑,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스터가 반긴다. 자정까지 운영한다는 말이 듣기 좋은 차분한 음악과 함께 울려 퍼진다. 새빨간 딸기를 지나칠 순 없지, 코코넛이 이따금씩 씹히는 딸기 생크림케이크는 따뜻한 밀크티와 궁합이 좋다. 와인과 맥주도 판매하니 한 잔 더 하고 싶을 때 찾아도 좋겠다.

1 Chome–14–18 Yakuin, Chuo Ward, Fukuoka 월 · 수~토요일 13:00~00:00, 일요일 13:00~22:00(화요일 휴무) 밀크티 650엔, 딸기 생크림케이크 450엔

AIRLINE
후쿠오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이다. 비행시간 약 1시간 25분. 영화 한 편도 채 못 봤는데 금세 도착이다. 매일 17편 이상의 직항편이 운행 중이다. 부산항에서도 배를 타고 3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다.

WEATHER
겨울은 후쿠오카를 여행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서울의 초봄 또는 늦가을 날씨. 우리나라 겨울을 생각해서 패딩을 들고 가면 짐만 되기 일쑤다. 스웨터에 코트 정도면 오케이.

HOTEL
아오지 하카타 호텔
후쿠오카 시내의 중심, 하카타역에서 도보로 고작 10분 거리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호텔 1층에 대욕장도 있으니,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이만한 숙소도 없다.

Japan. Endless Discovery. 나만의 일본을 LIVE 하다
취재협조 일본정부관광국(JNTO)